

네 어머니와 비르지니네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은가.

폴

비르지니가 부자 할머니의 손을 빌어 두 분을 챙길 거예요.

노인

부자들은 자기 영예를 드높여주는 사람들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단다. 그들에게는 라 투르 보인보다 긍휼히 여길 만한 친척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나, 이들조차 저 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, 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, 수도원에 갇혀서는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있지.

폴

유럽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! 아아! 비르지니는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해요. 그녀에게 부자 친척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? 그 아이는 이 오두막 아래서 너무나 행복했고, 머리에 붉은 머릿수건이나 꽃만 둘러도 너무 예뻐서 그 이상 꾸밀 필요도 없었죠. 돌아와, 비르지니! 호화저택도 부귀영화도 버려버려. 이 바위산으로 돌아와. 이 숲이 만들어주는, 우리의 야자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로 돌아와. 맴소사! 넌 지금 불행할 텐데